광주공원 '청춘 빛포차 광장' 조성 완료 '전면 개방'

먹거리·문화 공존 '시민 열린광장'
주변 문화자원·원도심 등 연결
"차 없는 거리로 유동인구 증가"
강 시장 "보행자 중심 도시공간"

강기정 광주시장이 22일 남구 구동 광주공원 주차장에 조성된 '청춘 빛포차 광장' 개방 행사에 참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사람 중심의 도시공간 혁신인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 도시' 실현을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갔다.

광주시는 22일 남구 광주공원 주차장에 '청춘 빛포차 광장'을 조성, 전면 개방했다. 앞으로 열린광장으로써 다양한 먹거리와 문화가 어우러지고, 시민들이 걷고 머무르는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시장과 임택 동구청장, 차없는거리 주민, 상인회 대표, 대·자·보 시민실천단 등이 참석했다. '청춘 빛포차 광장'은 자동차로 단절된 도시공간을 연결해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 온실가스 감축 등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대·자·보 도시의 실현 방안 중 하나다.

특히 광주공원, 희경루,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등 주변 문화자원과 함께 양림동·동명동·서남동 등 원도심과 연결해 '걷고, 모이고, 머무는' 역사와 문화가 함께 하는 시민공간으로 거듭나게 된다.

광주시는 빛포차 광장을 통해 기후환경 편익을 높이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 대·자·보 도시 효과를 검증,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또 보행자 중심의 도로공간 재구조화를 위해 '청춘 빛포차 거리'를 시작으로 '대각선 횡단보도' 확대, '차 없는 문화전당길' 운영도 추진한다.

광주시는 지난해 6월 '대·자·보 도시 광주'를 선언, 교통정책 방향을 기존의 승용차 중심에서 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자·보 도시는 광주G-패스를 시작으로 청춘 빛포차 광장, 광천권역 교통대책 등으로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어 2026년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개통과 함께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해 대자보 도시로 성큼 나아갈 예정이다.

여기에 레저를 넘어선 자전거 일상화를 위해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 자전거 전용도로', '광주천 자전거도로', '첨단지구 일대 전국 최초 자전거 생활권 시범지구'를 조성한다.

광주시는 '청춘 빛포차 광장' 개방 행사에 앞서 '지역과 경제를 살리는 차 없는 거리 확산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광주 10여곳에서 시행한 '차 없는 거리' 경제효과와 성과를 공유하고, 대·자·보 도시 전환의 환경적 효과, 차 없는 거리 확산 방안 등을 논의했다.

광주지역 '차 없는 거리'는 △금남로 차 없는 거리 △충장로4·5가 충장도깨비여름비어축제 X 청년상생마켓 △시청 앞 지구의 날 차 없는 거리 △풍암동 소통테마길 △군분로 토요야시장 △백운광장 토요야시장 △전남대 후문 대학로 △광산 세계 야시장 △1913송정역시장 차 없는 거리 △상무금요시장 등이다.

참석자들은 차 없는 거리 운영기간 동안 유동인구가 늘고 매출이 상승하는 등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강기정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자동차로 단절된 도로를 연결해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중심의 대·자·보 도시를 실현하는 것은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며 "점이 모여 선을 이루듯, 대·자·보 도시로 가는 하나의 점이 되길 바라고, 시민들의 공감에 힘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전남도, 지난달 고향사랑기부금 2억 모금

김장시즌 이벤트 1899명 참여
농산물 소비·노인 일자리 기여

전남도는 2024년 12월 한 달간 김장 시즌 고향사랑기부제 인증 이벤트를 진행한 결과 모금액 2억원의 실적을 올렸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이벤트 기간에만 2024년 모금액의 22%를 달성한 셈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한 달간 이벤트를 열고 전남도청에 10만원 이상 기부하고 고향사랑e음에서 답례품을 주문·수령한 다음 후기를 작성하면 전남 김치 1kg(파김치·갓김치·총각김치·고들빼기김치·배추김치)를 추가로 증정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벤트에는 총 1899명이 참여해 연말에 김장이 어려운 직장인의 큰 공감 속에 성공적으로 마감됐다. 시니어클럽 어르신이 직접 담근 김치를 제공해 전남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노인 일자리 사업 소득에도 크게 기여했다.

강경문 전남도 고향사랑과장은 "12월 이벤트로 노인 일자리 생산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기회가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전남을 위해 모금된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이 제공되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기부금은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된다.

온라인에서도 고향사랑e음 시스템(ilovegohyang.go.kr), 액티부키(놀고팜), 국민은행(KB스타뱅킹), 기업은행(I-ONE Bank), 신한은행(신한SOL뱅크), 하나은행(하나원큐)에서 고향사랑기부가 가능하다. 오프라인에서는 NH농협은행에 방문하면 고향사랑기부를 할 수 있다.

오지현 기자

광산구 소비 촉진 동참 릴레이 캠페인

광주 박병규 광산구청장과 지역 관계기관, 소상공인 단체 등이 22일 광주송정역 앞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 촉진 동참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광주시, '청년13(일+삶)통장' 참여자 모집

내달 3일까지…올해 620명 선정

광주시는 일(1)하는 청년의 더 나은 삶(3)을 지원하는 '청년13(일+삶)통장' 10기 참여자를 22일부터 2월3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모집 인원은 620명으로 지난해 9기(610명)보다 확대됐다.

이 사업은 19~39세(1985년 1월2일~2006년 1월1일 출생) 근로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10개월간 100만원을 저축하면, 광주시가 청년에게 100만원을 지원해 총 200만원의 만기금과 이자를 마련할 수 있는 광주시의 대표적인 청년 금융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다.

지난해 참여자 610명 중 601명이 12억 200만원(만기율 98.5%)의 만기금을 수령했다. 또, 금융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청년들은 재무 관리, 지출 습관 개선 등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올해 지원 대상 청년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이고 최소 3개월 이전부터 계속 근로해야 하며, 본인 세금 포함 월 소득이 86만5444원~287만416원에 해당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22일부터 2월3일까지 청년13(일+삶)통장 누리집(https://www.13account.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참여자 선정은 서류 심사 적격자 전원을 대상으로 2월 10일 추첨하며 과정은광주청년센터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gjyouthcenter)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참여자는 2월부터 1회차 10만원 납입을 시작으로 11월까지 10개월간 100만원을 저축하게 되며, 광주시는 10개월간 중도탈락 예방지원, 금융교육 등을 통해 지속해 청년 금융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 광주청년정책플랫폼 또는 13통장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병하 기자

전남도, 설 이전 취약계층 어르신 민생지원금 지급

난방비·부식비 등 예비비 105억

전남도가 설을 맞아 겨울철 한파와 에너지물가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에 대한 민생지원금 105억원을 설 이전에 지급 완료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취약계층 어르신의 겨울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도 예비비 105억원을 긴급 편성했다.

겨울철 어르신의 균형잡힌 식사 제공을 위해 전남지역 9486개소 경로당에 부식비를 10만원씩 3개월간 총 30만원을 지급하고,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어르신 7만여 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난방비를 한시 지급한다.

그동안 전남도는 어르신이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에 난방비 월 40만원, 양곡비 월 5만2000원을 지급했다. 또한 지속적인 정부 건의로 경로당 운영비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식사 밑반찬이나 재료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제도를 개선했다. 이 외에도 노인복지관 등 138개소의 경로식당에서 저소득 어르신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연간 109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황인수 고흥군 노인회장은 "전남도가 어려운 경제·정치적 여건에서도 노인을 위한 돌봄 정책을 꾸준히 펼쳐 경제적 부담을 많이 덜고 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대내외적 여건이 쉽지 않지만 '희망과 치유의 2025년' 설을 맞아 어르신이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내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광주시,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실시

저소득층·장애인 등 대상
1년 최대 48회 이용 가능

광주시와 보건복지부가 올해도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안마바우처)' 사업을 한다.

22일 (사)대한안마사협회 광주지부에 따르면 '2025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 신청을 오는 2월10일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해당 사업은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고용을 돕고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 목적을 두고 있다.

서비스 이용 대상은 △가구 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근골격계(허리디스크, 관절염 등)·순환계(고혈압, 심혈관질환 등)·신경계(중풍, 뇌졸중 등) 질환이 있는 만 60살 이상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가운데 일정 질환이 있는 장애인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장애로 기능적 어려움이 있는 자 등이다.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 장애인 등록증 또는 관련 증명서류(기초연금 수급자나 중증장애인은 일부 서류 제출 면제)를 신청할 때 제시하면 된다.

안마바우처는 1회당 1시간 서비스되며, 본인 부담은 4200원이다. 매주 1회씩 월 4회, 1년 최대 48회 이용 가능하다.

김경숙 대한안마사협회 광주지부장은 "전문교육을 받고 국가자격증을 획득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면서 "만성 질환을 지니고도 생활 형편 탓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일정 질환을 지닌 장애인들은 건강을 챙기면서 복지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